

21세기에 넘겨줄 유산

黃滄江

단국대 교수·국문학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저물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막을 올릴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세기에 물려줄 20세기의 유산 목록을 공동으로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19세기말은 20세기에 넘겨 줄 유산정리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퇴폐, 향락, 염세, 회의 등 온갖 병적 경향을 비유하여 쓰는 '세기말'이라는 용어는 실인즉 19세기말 유럽, 특히 프랑스를 휩쓸었던 회의적, 퇴폐적, 병적인 경향을 지칭하는 데서 왔다. 이는 단적으로 한 세기가 유산 정리에 실패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밖에 안된다. 그때 우리 한국은 어떠했던가? 19세기말 국망의 사단을 연 수치스러운 유산을 20세기에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프랑스나 유럽의 '세기말'에 열배 스무배 뒤지면 뒤졌지 나올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남은 날은 얼마 없다. 이 시점에서 후대에 물려줄 값진 유산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짊어진 부채의 소재를 확인하고, 청산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21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채를 안고 시작하게는 말자. 다음 세기에 넘겨줘서는 안될 부채의 가장 큰 것이 국토의 분단 현실이다. 남북의 형제들은 마음을 비우고 통합을 논의하여 20세기가 가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분열보다는 화합의 길로 나가야 하리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신뢰하고 화합하는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6.25 직후 허리 졸라매고 혼신의 힘을 모아 전쟁의 폐허 위에 삶의 터전을 다져 나간, 그 마음으로 한번쯤 돌아가 볼 일이다. 가난 속에서도 깨끗한 자세를 흐뜨러뜨리지 않았던 옛 선비들의 생활신조- '安分知足(자기 분수를 알아 거기에 마음 붙여 죽한 줄 압이다)'의 정신이 오늘날처럼 절실할 수가 없다. 공자의 말을 끌어 올 것도 없이 정치는 마땅히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온갖 부정이 온상이 되고 있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뇌물수수물 사회 각분야에서 뿌리 뽑아 일소하는 것도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내내 용인된다면 우리의 20세기는 마침내 새 세기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유산목록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상황을 지양한 통일조국의 밝은 청사진을 확실히 가지는 일이다. 통일된 우리 조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심정적인 통일론은 가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때가 있는 듯하다. 어떤 나라가 되든 통합되지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다. 통일조국에 관한 청사진은 당연히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능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대학은 학문의 상아탑으로 권위와 존경을 아울러 인정받는다. 국민은 누구나 돈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는다. 의료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값싸게 개방되고, 의료종사자들은 고도의 도덕적 소명감을 가진다. 있을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병리를 극복한 위에서 국민 각자가 가장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보장된 나라야말로 통일된 조국의 참 모습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감상적인 열정과 환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결코 방심하거나 등한해서 안될 것은 어떤 한사람의 영광만을 위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한목소리로 예찬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나라' 만은 결코 통일조국의 청사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수 국민에게 있어 '영광'이 되기 보다는 '굴종'이요, 그것은 나라가 아니라 '감옥'일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먼동이 바야흐로 트려 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우리는 20세기의 누추한 유산일랑 말끔히 청산하고, 남은 10년 동안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깨끗하고 유산만을 챙겨 통일조국의 밝은 아침에 기여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표지인물	2	'작품' 중심의 한국불교조각사 연구 「원웅과 조화」 펴낸 강우방씨
리뷰	4	20세기의 전쟁과 전쟁문학 걸프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초점	6	현대적 해석으로 다시 보는 동양고전 쉽게 풀이한 책들 인기... 재번역 활기
서평	8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허홍식 유재천 「한국언론과 이데올로기」—김정탁 9 스티븐즈 「미학과 비평철학」—강대석 오레이 「오페라의 역사」—문호근 10 전경옥 「춘향전의 사실형성원리」—설성경 김학성 외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김 철
확대서평	11	우리 소설장르의 새로운 영토개척 —김선학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
출판화제	12	연극도서 출판의 현대화와 전망 「음악시대」 이끌 두 전문지
화제의 책	14	번역소설 읽기의 몇가지 즐거움 최근 출판된 장편소설 3편을 중심으로
	15	구술로 복원한 민초의 삶과 언어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현장기획	16	모든 예술 한데 모인 종합문화공간 —하재봉 책에 대한 고정 관념 깨뜨린 위싱턴의 서점들
쟁점	18	과연 무엇이 옳고 어느쪽이 정당한가 전집물 「할인판매」 시비의 속사정
이 책 그 사람	20	「인도무용의 손동작언어사전」 낸 신명숙씨 「카피라이터 입문」 낸 이만재씨 21 「민족극과 전통예술」 낸 허 규씨 「불교용어 바르게 읽기」 낸 안길모씨
에세이	22	그 넉넉하고 활기찬 새해 으뜸날 —이택희 우리 옛문헌에 나타난 설날 세시풍속
나의 첫시집	23	돌이켜보면 새삼스런 그때의 감개무량 —김춘수 고향 통영서 펴낸 처녀시집 「구름과 장미」
해외화제	24	美맥그로힐社가 이루려던 '꿈의 계획'
세계의 출판	26	할리우드와 워싱턴이 벌인 '암거래' 28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출판계 소식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